

2002년 12월 11일

---

## 새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게 보내주고 계신 큰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97년 대선에 비해 이번 선거는 몇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의가 약화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 자체가 지역주의 극복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30여년 만에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의미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 점도 우리 정치사에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당당히 경쟁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새로운 문화가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치 실현을 위한 제 구상의 일단을 국민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통합의 인사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인사 하나만 제대로 해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지역편중 인사, 측근과 가신 인사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정부를 불신했습니까? 노무현 정권에서는 가신과 측근정치를 청산하여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과 정파와 친소에 구애되지 않고 철저히 능력과 신망에 따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그 어떠한 사적 통로가 개입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공직 대상자의 천거와 검증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이와 별도로 장차관의 경우, '고위직 인사위원회'를 신설해 철저한 사전 심사와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부패와 비리를 철저히 척결하겠습니다.

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람은 일체의 공직 임용에서 배제시키고 정당의 선출직 공천도 금지하는 방안을 입법화 하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사항 뿐 아니라, 처음 신고하는 재산의 형성 과정까지 신고·소명케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공직에 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가족과 4촌 이내 친인척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통령 임기 중 재산 변동사항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 중 가족과

친인척의 신규 공직임용을 배제함으로써 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과 '특검제'의 상설화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규명하겠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특히 권력 주변의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할 것입니다. 공적자금 등 현 정부의 정책 중 논란이 돼 온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과를 가려낼 것이며,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낡은 정치의 청산입니다.

낡은 정치 청산에는 두 가지가 기본이 됩니다. 하나는 제도의 개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교체입니다.

구시대의 낡은 정치를 재생산해 온 구조와 제도를 혁파하겠습니다. 돈 안드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정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온 불의하고 부정한 정치인들을 배척하겠습니다. 유능하고 깨끗한 새 인물들이 정치의 새로운 중심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당적 이동은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할 경우, 1년간 타 정당 가입을 금지시키도록 법제화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역시 당내 의결을 거쳐 제명되면, 타

정당의 당적을 1년간 가질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당도 변해야 합니다.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태하여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합니다. 낡은 정치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중심에 서서 당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한나라당에게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민주당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가 바뀌고 발전합니다. 저는 평당원이지만 취임 전까지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중대한 기로입니다. 3金 식 낡은 정치를 계속하느냐, 새 정치를 세우느냐가 이번 선거로 결정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가 이번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역사의 고비마다 바른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은 새 시대, 새 정치를 선택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2. 12. 11.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 무 현